

예비자 교리 교안 18 (3 월 18 일)

교회 내 조직과 활동 단체 그리고 순교성인의 모범

1. 각 본당은 본당 내 지역에 따른 공동체를 둔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소공동체모임 또는 반모임 혹은 구역모임이라고 하며 자치조직임과 동시에 복음을 서로 나누고 서로 신앙 안에서 상부상조 하는 공동체이다.
2. 복음나누기 7 단계 -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성서를 묵상하고 서로 그것을 나누는 포맷이 개발되어 표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복음 나누기 7 단계이다.

마르코복음 10 장 46 절 -52 절로 실습

1 단계 초대한다 -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단계 읽는다 - 성서 본문을 읽는다.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3 단계 바라본다 - 성서 본문 중 마음에 닿는 단어나 구절을 큰 소리로 묵상한다.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큰 소리로,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에는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전체 본문을 다시 읽는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4 단계 듣는다 -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 단계 나눈다 - 마음 안에 들려온 말씀을 나눈다.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적 체험"이나 "생활 말씀"에 대한 체험을 나눌 수도 있다. 어떤 참가자가 성서 구절 에 관한 "나눔"이 아니라 "설명"을 할지라도, 그 설명에 관하여 "토론"하지 않는다. 나눔의 시작은 "나"나 "저"로 시작한다.)

6 단계 활동한다 -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토의한다.

"지난번 모임에서 결정한 활동에 관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7 단계 기도한다 - 자발적으로 함께 기도한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혹은 잘 아는 기도나 성가로 마칠 수 있다.)

3. 각 본당은 기본적으로 본당신부의 사목에 참여하는 사목협의회를 최고의결기구로 두며 그 협의회에는 각 분과가 있어서 자기파트와 관련된 모든 본당 내 모든 활동을 분장한다..
4. 그리고 한국교회의 경우 본당 별로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목적으로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별이나 연세별 단체와 함께 각종 신심단체들이 있다. 신심단체 중 가장 한국교회에서 크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조직은 레지오마리에이다.

◆ 한국 순교 성인 - 출처 가톨릭 대사전

한국 교회의 103 명의 성인을 총칭하는 말이다. 103 명 중 79 명은 1925 년에, 그리고 24 명은 1968 년에 시복(諡福)된 후 1984 년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 주년에 즈음하여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에 의해 5 월 6 일 모두 시성(諡聖)됨으로써 성인품(聖人品)에 올랐다. 한국성인의 축일은 9 월 20 일이고, 축일의 명칭은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바오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자'이다.

순교 종류별로는 참수(斬首)가 77 명으로 가장 많고, 교수(絞首)가 15 명, 병으로 또는 매맞아 옥사한 이가 11 명이다. 순교지별로는 서소문 밖 네거리가 44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 새남터가 11 명, 당교개가 9 명, 전주의 숲정이가 7 명, 충청도의 수영(水營)인 보령(保寧)의 갈매곶이 5 명, 평양, 대구, 공주가 각각 1 명이고 나머지는 서울 감옥에서 교수되거나 옥사하였다.

한국성인들의 신분과 직업은 아주 다양하다. 신분으로 말하면 양반, 중인, 상민 등이 골고루 섞여 있어 승지(承旨)나 선공감(繕工監)과 광흥창(廣興倉)의 관리, 군인, 궁녀 등이 있는가 하면, 상업, 농업, 약국, 인쇄, 서사업(書寫業), 심지어는 짚신을 삼고 길쌈과 샷바느질 등으로 생계를 간신히 유지한 사람들이 많다.

선교사 10 명을 포함한 한국성인 103 위는 모두가 순교 성인이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성인이 된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당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박해자들 앞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고자 그들의 목숨을 바친 것이다. 이러한 순교는 사랑의 최고의 증거이다(교회헌장 42 항).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이다(요한 15:13). 그러므로 한국성인의 순교는 하느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증거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그것은 한국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한 의의와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조선왕조는 유교적 이념을 국시로 삼았기 때문에 군부(君父)의 절대권을 내세워 군부에 대한 충효(忠孝)를 부동의 국민도덕으로 고수했었다. 이런 국가체제 아래서 하느님에 대해 최고의 충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한국 순교자들은 군부에게 최고의 충성을 요구하는 박해자들 앞에서 "사람에게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사도 5:29)고 한 사도들과는 다른, 즉 "천지신인(天地神人) 만물을 조성하시고 상선벌악(賞善罰惡)하시는 대군대부(大君大父)이신 천주를 결코 배신할 수 없습니다"는 특수한 형식의 신앙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천주교는 무부무군의 종교로 낙인찍히게 된 것이다. 천주교를 무군 뿐 아니라 무부의 종교로 낙인찍으려 한 것은 천주교인들이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효를 거부한 때문이다. 예수는 그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보다 그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마태 10:35-37). 주님의 이 요구는 무엇보다도 한국 순교자들에게 가혹한 것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만큼 혈연과 가족공동체가 중시되는 나라도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문보다는 육정을 못 이겨 배교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런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사실 일반적으로 최대의 사랑의 증거, 즉 순교를 통한 애주만유지상(愛主萬有之上)은 오로지 이 육정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 내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 육정을 이겨냈을 때 그것은 도리어 서로의 순교를 격려하는 초자연적 사랑으로 승화하였다. 한 가족에서 여러 순교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성인 93 명 중 성직자는 유일하게 김대건 신부뿐이고 나머지 92 명은 모두 평신도이다. 그러므로 한국성인의 교회활동과 순교는 그 자체가 한국 교회 평신도상이요 평신도적 영성(靈性)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